

등록번호	재무과- 12092
등록일자	2015. 12. 24.
결재일자	2015. 12. 24
공개구분	공개

결	주무관	재무팀장	재무과장 (간사)	재정위원장
재				
협 조	사무국장			

2015학년도 제4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 회의 내용

1. 개의((開議) 선언 (위원장 16:00)

2. 2015학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승인

- 위원장: 전회 회의록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함.

3. 안건 심의

가. 2016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 계획

- 배태관 팀장: 회의자료에 의거 2016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 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정상엽 위원: 2016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 계획을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분임기관별 예산편성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지, 분임기관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물음.
- 배태관 팀장: 먼저 계획을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고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편성 및 심의 기간이 촉박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함.
- 최웅용 위원: 11쪽 4번(약학대학 약무실습비 지원), 5번(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체제 정착비 지원)은 오래전부터 지원되어온 특별예산 성격인데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물음.
- 안영진 위원: 치전원은 2016학년도가 마지막 지원이고, 약대는 「2+4년 제」 학제개편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약무실습비로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지원할 예산으로써 학생들에게 별도로 실습비를 걷지 않고 등록금에 반영하여 타 대학과의 비교 등을 통해 1억7천만원 규모로 지원함. 아울러, 해당 대학에 자구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 나갈 것을 답변함.
- 정상엽 위원: 예산편성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내용으로 인류학과, 역사학과, 지리학과, 가정교육과, 조경학과 등의 학생들도 몇십만 원씩 개인 부담을 통해 졸업요건인 답사 및 실습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약대만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언급함.
- 안영진 위원 ~~지리학과와~~ 답사는 ~~졸업요건은 아님을~~ 설명하고, 약대는 약무 실습을 거치지 않으면 졸업자격과 약사고사 응시자격 부여에 문제가 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등록금 인상분의 20~30%를 돌려주는 의도도 있음. 법전

원의 경우도 설립인가 시 기준에 따라 24.7%의 장학금을 배정해야 하는 등 제도적인 요건 등이 있음을 설명함.

- 최웅용 위원: 18쪽과 19쪽 관련하여 단과대학에 배정되는 등록금수입 대비 배정예산 비율에 대해 물음.
- 안영진 위원: 과거 13%정도가 최고 수준이었고, 내년에는 세입세출 격차가 커짐에 따라 단과대학 예산 배정도 일괄적으로 삭감하여 9.2%정도 수준으로 전임총장 재임시 12.5% 보다 약 3.3% 하락한 수준임을 설명함.
- 김원재 위원: 대학 핵심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단과대학인데 실제로 최근 단과대학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역할 수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본부 대비 단과대학 예산 비율이 얼마인지를 물음.
- 안영진 위원: 2016학년도에 단과대학은 70억원, 부속시설을 포함한 본부는 140억원임. 2015학년도에 본부는 250억원 규모이지만 학생 감면장학금 70억원 등을 제외하면 본부가 사용 가능한 예산은 180억원 내외임.
대학운영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로써 단과대학 예산을 증대하면 좋겠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학 지원규모가 다른 거점 국립대보다 낮은 편이 아님을 설명함.
- 최웅용 위원: 우리 대학 수입대체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데, 공대 자동차경정비센터의 운영은 수입대체로 운영 중인지를 질문함.
- 재무과장: 공과대 자동차경정비센터는 국유재산 유상사용을 허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음을 답변함.
- 조영순 위원: 이번 예산 편성에서는 학생자치활동경비는 축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 맞는지 물음.
- 안영진 위원: 학생자치활동경비는 줄이지 않았음을 답변함.
- 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2016학년도 대학회계 재정운용 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함.

나. 2015~2019 전남대학교 중기재정운용 계획

- 배태관 팀장: 전남대학교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회의자료 24쪽부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함. 
- 김원재 위원: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과 교수 급여가 다른 거점 국립대보다 7백~1천만원 정도 적은데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음.
- 안영진 위원: 등록금 수입이 감소되어 산단 전입금 확대 등 추가방안을 고

려해야 함. 공무원으로서의 교수 급여는 모든 국립대학이 동일하나 다른 점은 대학별로 지급하던 종전 기성회회계의 급여보조성 경비로 인함. 이것은 우리 대학 기성회비(등록금)가 부산대, 경북대 등 다른 거점 국립대보다 적기 때문임을 설명함. 또한, 산단 간접비 및 발전기금 추가 확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마련 중인 대학 발전계획에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을 답변함.

- 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재정확보를 위한 계획 보강 등 노력을 당부하고 2015~2016 전남대학교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함.

다.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이용(2차)

- 재무과장: 회의자료에 의거 세출예산 이용(1차) 개요와 21개 기관 22건, 총 금액 1,732,088천원에 대한 이용 소요사항을 설명함.
- 최웅용 위원: 매년 12월경이면 국고에서 상당금액의 시간강사 국고지원금이 왔던 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떤지를 물음.
- 재무팀장: 작년에는 5천만원 규모, 올해는 2~3천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예상 됨을 답변함.
- 최웅용 위원: 회의자료 4번, 직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과 관련하여 매년 정원대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부족하게 되었는지를 물음.
- 재무과장: 예산 여건상 직원 1인당 450만원 총예산 34억(조교포함)이 편성되었으며, 전북대, 부산대 등 타 대학은 우리 대학보다 더 많이 편성하였음을 답변함.
- 최웅용 위원: 19번, 인문대 60년사 편찬사업에서 위원장수당은 편성이 불가 한 것이 아닌지를 물음.
- 안영진 위원: 위원장은 내부 교직원이 아닌 명예교수임을 답변함.
- 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이용(2차)은 원안대로 승인함.

■ 기타 사항

- 차기 재정위원회부터 예산집행률 확인을 위해 분기별 집행률을 재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 이두희 위원: 지난 번에 상정하였다 못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기준안’은 내부 검토 결과 지급지침 변동은 재정의 변동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상정 없이 추진하고, 제도의 첫 시행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도 비용 지급 후 지침을 정비하는 순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대학의 최종안이 나오면 재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임을 설명함.

- 금회 회의록 간인은 기존 위원이 계속 간인하기로 함.

■ 폐회 선언 (위원장 17:30)

2015. 12. 15.

기록자: 서기 (재무팀장) 오 선 진

확인자: 간사 (재무과장) 김 현 재

10월 17일